

화엄사

■ 코스 지도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 떠나는 지리산의 명찰



■ 오디오 가이드 리스트

구분	지명	주요내용	비고
1	남악사	천년 남악, 지리산	문화재/생태
2	불이문	큰 산 아래 큰 절집 화엄사	문화재
3	벽암국일도대선사비	팔도 승군의 총지휘관 벽암대사	문화재
4	금강문과 천왕문	불법을 수호하는 금강역사와 사천왕	문화재
5	보제루	부조화를 조율해 낸 지혜로운 가람배치	문화재
6	대웅전	화엄사 대웅전의 주인은 비로자나불	문화재
7	영전	화엄석경 이야기	문화재
8	원통전과 나한전	원통전에 새겨진 역사의 자취	문화재/설화
9	각황전	각황전 창건 설화	문화재
10	사사자삼층석탑	연기조사의 효심	문화재
11	구층암	자연을 닮은 절집, 구층암	문화재/생태

1. 남악사

화엄사로 이어지는 다리를 향해 걷다보니 오른편으로 단출하게 서 있는 '남악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비록 작은 집이지만, 저기 저 장엄한 지리산의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오는 전각입니다. 해마다 곡우 때면 남악사에서는 지리산신에게 제례를 올리고, 천년이 넘는 남악제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악제'의 '남악'은 지리산을 일컫는 또 다른 명칭입니다.

신라시대 이래로 나라에서는 전 국토에 걸쳐 오악, 즉 5개의 명산을 지정하고, 국가가 주관하여 제례를 올려왔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어 백성이 평안하도록 해 주소서,' 하고 기원을 올린 것이지요. 그럼 오악은 어떻게 정했을까요? 먼저 수도에 있는 산을 중악으로 삼고, 국토의 동서남북 경계에 있는 대표적인 명산을 각각 '동악, 남악, 서악, 북악'으로 지정하여 정했다고 합니다.

지리산은 신라시대에 처음으로 남악으로 지정되었답니다. 그 후 고려,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고, 그에 따라 수도도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남악'으로서 천년이 넘는 긴 세월을 한결같이 신령스러운 산으로서 제사를 받아 옵니다.

지리산이 천년 넘도록 국토의 남악으로 불리운 것이 단지 우연만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지리산을 '두류산'으로 즐겨 불렀다고 합니다. '백두산의 정기가 흘러 내린 산'이라는 뜻으로, 풀어 말하자면 우리민족의 영산, 백두산의 신령한 기운이 백두대간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 국토 남단에서 힘차게 솟아오른 산이 바로 지리산이라는 뜻이지요.

풍수지리로 유명한 도선(道詵)국사가 '우리나라 산줄기는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지리산에서 끝난다.' 라고 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리산은 그냥 하나의 산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국토를 함축하여 대변하는 그런 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 선인들이 그 옛날부터 지리산을 평생을 두고 올라야 할 명산으로 여기고, '남악'으로 받들어 오게 된 것입니다.

2. 불이문

고풍스러운 화엄사의 첫 관문 앞에 섰습니다.

두 개의 큰 기둥이 커다란 기와지붕을 이고 있다 하여, 일주문으로 불립니다.

‘지리산 화엄사’라고 힘찬 필치로 써내려간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저 멀리 지리산이 딱하니 버티고 서서 화엄사를 품어 안은 형세로군요.

산이 크니 그에 걸맞게 사찰도 큰 것 같습니다.

명산 지리산이 있기에 명찰 화엄사 또한 가능했던 것 아닐까요?

화엄사는 지리산 자락의 보물창고 같은 절입니다. 여러 국보급 유물들도 많지만, 곳곳에 배어있는 우리 선조들의 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역사 속으로 시간 여행을 온 기분이 듭니다.

화엄사는 544년에 멀리 타국 인도에서 오신 연기스님이 세웠다고 합니다.

비구니 스님인 어머니를 모시고 ‘연’이라고 불리는 날개달린 거북이를 타고, 화엄경을 가지고 왔다고 전해집니다.

지리산 자락에 터를 잡으신 연기조사는 ‘화엄경’에서 절 이름을 따서 화엄사라고 짓습니다.

이후 의상대사, 도선국사, 대각국사 의천등 유명한 스님들이 머무르면서 사찰은 점점 번영을 누리며 확장되게 됩니다. 고려 문종 때는 지리산 인근 3개 도에서 왕실에 올리는 세금 중 일부를 직접 거둬들이도록 하여 일주문 밖에 큰 창고까지 새로 지어야 했다고 하니, 당시 화엄사의 당당한 위세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현판의 글씨는 인조의 숙부인 의창군의 친필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는 ‘혹세무민’, 즉 세상 사람들을 속여 정신을 홀리고 세상을 어지럽힌다하여 불교를 탄압하는 시절이었지요.

하지만 당대의 명필인 왕실 어른과 고관대작의 친필을 걸어 놓으면 향촌의 유지들이 함부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불교를 탄압하던 시절에 왕실에서 친필 현판을 내려 줄 만한 사찰.

그 정도라면 조선시대 화엄사의 위상을 짐작하고도 남겠지요?

3. 벽암국일도대선사비

금강문을 향해 걷다보니, 오른쪽으로 우직스러워 보이는 큰 용머리를 가진 거북이 등 위로 올라앉은 커다란 벽암대사의 탑비가 보입니다. 불교를 탄압했다던 조선시대에 어떤 업적을 세웠길래, 불교 국가였던 신라, 고려시대보다도 더 큰 탑비를 세워 이 분을 기린 것일까요?

안내표지판에는 ‘벽암국일도대선사비’라고 써있습니다. 뭐 이리 긴지 읽기도 힘드네요.

‘한 나라의 으뜸이 되는 대선사, 벽암’이란 뜻이니 불교를 탄압하는 시기에 스님이 받았다고는 상상하기 힘든 아주 대단한 칭호입니다.

벽암대사는 임진왜란과 양대 호란의 혼란스런 국난의 시기에 승려로 구성된 군대인 ‘승군’을 지휘하고, 전란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화엄사와 쌍계사, 법주사 등의 사찰을 재건하는 등 커다란 업적을 세우며 침체된 조선후기 불교계에 활력을 불어넣으신 분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화엄사는 승군의 주둔지이자 훈련장이었습니다.

벽암대사는 이 시기에 윤희스님을 따라 참전해 이순신장군이 이끄는 해전에서 공을 세우기도 합니다.

화엄사 주지인 설흥 스님은 300 여 명의 승군을 이끌고 구례의 선비들이 이끄는 의병에 합류하여 섬진강변에 있는 석주진에서 많은 왜군에 맞서 싸우다가 결국은 모두 전사하고 맙니다. 그 보복으로 인해 화엄사는 왜군의 손에 불타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말죠.

임진왜란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중국대륙에서 새로 일어선 ‘청나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나라에서는 벽암대사를 총지휘관으로 임명하여 흠으로 쌓았던 남한산성을 돌로 더 견고히 고치게 합니다.

즉, 남한산성은 국가 병력이 아닌 전국 8도에서 소집된 스님들로 구성된 승군에 의하여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국가의 불운은 그로써 끝나지 않았는지 1636년 청나라의 두 번째 침입인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벽암대사가 육순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승병 3천명으로 구성된 항마군을 조직하여 전장에 나섰다는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합니다. 스님이 칼과 활을 들고 살생을 하다니, 너무 이상하게 들리네요. 더군다나 윤희를 믿는 불교의 세계관으로 볼 때 살생을 하면, 다음 생에 더 저급한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니 보통의 결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스님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개인의 종교적 신념만을 고집하기보다 중생의 아픔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던 것입니다.

비석에 얽힌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까 합니다. 저기 탑비에 새겨진 글씨가 보이시나요?

수백 년 세월이 흐른 한자들이건만 그 단아한 필체의 맛은 온전히 살아있습니다. 벽암대사를 기리는 저 글은 영의정을 지내고 구례로 은퇴해 내려온 ‘백헌 이경석 선생’이 지으셨죠. 그런데 백헌 선생은 이 비문을 짓기 이전에 당시의 임금인 인조가 청태조에게 굴욕적인 항복 의식을 행했던 사실을 기록한 ‘삼전도비’의 비문을 지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청나라의 강요에 의해 치욕적인 글을 지어 올리라는 명령에 받게 되자, 백헌 선생은 "글을 배운 것이 천추의 한이 된다."고 한탄하셨다고 합니다.

벽암대사의 비문과 ‘삼전도비’의 비문이 한 사람의 손에서 지어지게 되다니 이 또한 운명의 장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금강문과 사천왕문

이제 사찰의 두 번째 관문인 금강문으로 향합니다. 사찰에는 참 문이 많습니다.

일주문, 금강문, 사천왕문, 불이문 등등.. 그런데 이러한 문에 달릴 법한 커다란 문짝도 높은 담벼락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문들은 상징적인 문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문을 들어설때면 '이 안은 어떤 곳이지?'하고 긴장감도 생기고, 마음가짐도 더 경건해집니다.

문으로 겹겹이 막은 깊은 궁궐이란 뜻의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사찰도 부처님이 계신 궁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궁궐의 맨 처음 관문인 금강문에는 덩치 좋고 힘이 센 병사를 뽑아 지키게 하지 않았을까요? 사찰에서는 금강역사들과 사천왕들이 바로 그런 문지기 수호신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경비병에 해당하는 문지기 수호신, 금강역사보다 부처님의 경호실장에 해당하는 사천왕들의 지위가 훨씬 높습니다.

벽암대사가 약 400년 전에 흙으로 만들어 세운 '토상(土像)'인 금강역사를 살펴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나라연금강은 팔을 치켜들고 후려칠 듯 한 기세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연금강은 어찌나 힘이 센지 코끼리 백만배나 된다고 해요. 왼편에는 밀적금강이 팔을 들어 수비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밀적금강과 나라연금강이 손에 들고 있는 무기 보이시지요? 저 금강저는 어떤 것에도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금강석으로 만든 무기라,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천하무적의 무기라고 합니다.

자, 이제 사천왕문입니다.

'사천왕'들은 원래 고대 인도의 높은 신이었지만, 부처님의 설법에 감화되어 불법 수호신이 된 분들이라네요.

사천왕들은 저마다 비파, 칼, 용과 여의주, 보탑과 당과 같은 물건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동쪽의 지국천왕은 비파를 들고 음악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몹시 즐거운 모습입니다. 지국천왕은 수하에 노래 부르고 춤추며 놀기 좋아하는 건달바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일없이 빈둥빈둥 놀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을 '건달'이라고 하지요?

바로 이 '건달바'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북쪽의 다문천왕도 싱글벙글 거리고 있네요. 왜 웃고 있을까요? 다문천왕은 부처님의 설법을 많이 들어, 부처님처럼 불법, 즉 진리를 설교할 자격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쪽의 두 느긋한 사천왕들과는 달리, 바로 바깥 출입구 편에 서 있는 남쪽의 증장천왕과 서쪽의 광목천왕은 삼엄한 표정으로 입구 쪽을 노려보며 악귀가 들어 올 새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네요.

음, 그런데 다른 사찰의 사천왕문에서는 사천왕의 발밑에 깔려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신음하는 악귀들을 볼 수 있는데, 화엄사 사천왕 발밑에는 아무 것도 없네요.

사천왕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초창기에는 가끔 이런 특징이 나타나기도 한다는군요.

악귀가 침범하기엔 화엄사의 수비가 너무도 철통같았던 것일까요?

그런데 저 사천왕들은 인도출신이라면서 왜 중국식 갑옷을 입고 있을까요?

화엄사의 문화관광해설사의 도움을 얻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찰의 사천왕상은 주로 조선후기에 집중적으로 건축되었다고 해요.
무기로 중무장하고 중국풍의 장군 복장을 한 것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전란을 겪었던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천왕문들은 같은 시기에 승병장으로 위용을
떨쳤던 벽암대사와 그 스승 ‘부휴선수’에 의해 건립이 되었습니다. 사찰의 전 영역을 중무장한
사천왕들이 동서남북 영토의 경계지점에서 지키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침입해온 적군을 물
리쳐달라는 간절한 기원을 한 것입니다.”

5. 보제루

힘들게 계단을 오르니 자연스런 나무색 그대로가 아름다운 누각, 보제루가 눈에 들어옵니다. ‘널리 구제한다.’는 의미의 보제루는 원래 사찰의 주요의식인 ‘법요식’이 있을 때 스님이나 신도들이 집회를 갖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단청 없는 맨 얼굴의 보제루를 보니 애써 낮빛을 꾸미지 않아도 해맑은 얼굴의 선승의 모습같이 보입니다. 두꺼운 느티나무 기둥들을 툭툭 베어 굽고 웅이 진 모양 그대로 설렁설렁 다듬어 그대로 건물의 다리로 삼은 모습에는 반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일반적으로 ‘보제루’는 아래층이 트여 있고, 기둥이 높아 그 밑을 통해서 대웅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엄사의 보제루는 1층의 높이를 낮게 만들어서 누각 밑으로는 통과하지 못하고 건물 옆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건물 오른편 계단을 올라 각황전과 대웅전을 바라보며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지요. 보제루의 오른쪽 편에 서서 화엄사의 중심 마당을 바라보니 ‘ㄱ’ 자형의 높은 축대의 왼편에는 2층의 웅장한 각황전이 서 있고, 정면의 축대 위로는 1층의 대웅전이 서 있습니다. 언뜻 바라보니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유심히 관찰하면, 주인공이야 할 대웅전이 각황전보다 훨씬 규모가 작다는 점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훌쩍 넘어서는 오래된 사찰이다보니, 불전 건물이며 탑들이 건축되거나 재건된 시기들이 서로 달라서, 그로인해 발생한 불협화음적인 요소들을 해소하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 낼 지혜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 해결의 제 1 단계가 보제루 오른편으로 돌아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죠. 아마도 보제루의 밑이나, 왼쪽을 돌아 진입했다면 각황전의 크기가 대웅전을 훨씬 압도해 몹시 불균형하다는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좀 더 관찰해보니, 불균형을 만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곳곳에 숨어 있군요. 우선 각황전 앞과 대웅전 앞의 돌계단이 눈에 들어오네요. 각황전 앞의 계단은 폭이 좁고,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 각황전의 웅장한 기세를 눌러 주는 데 반해, 대웅전 앞의 계단은 폭이 넓고,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 시각적으로 대웅전을 크게 확장해 보이게 하여 기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당에 있는 탑들도 자세히 보니, 각황전이나 대웅전, 그 어느 불전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약간씩 자세를 틀고 서 있습니다. 보통 탑은 중심 불전 정면에 하나를 세우는 일탑식이거나, 두 개를 대칭으로 세우는 쌍탑식 양식에 따라 서게 됩니다. 그런데 동 오층탑과 서 오층탑은 언뜻 쌍탑으로 서 있는 듯 보이나 대웅전을 중심으로 대칭선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럼 동 오층탑이 대웅전의 탑일까 하고 살펴보아도 역시 중심축에서 한참을 비켜 서 있습니다. 전형적인 양식에서 벗어나 있는 두 탑.

그러나 자세히 바라보면 건물이며, 탑이며, 계단이며, 그 모든 것들이 자기 개성을 한껏 드러내면서도 서로 잘 어우러지고 있어, 부조화 속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화를 만들어낸 ‘화엄사’의 조경술과 선조들의 지혜에 그저 감탄할 뿐입니다.

6. 대응전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여러 개의 문들, 보제루와 일직선을 이루는 그 사찰의 중심축에 대응전을 얹습니다.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화엄사 대응전은 1630년에 벽암대사가 화엄사를 재건할 때 제일 먼저 다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화엄사 대응전에 모셔진 불상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여느 절집과 다른 점이 있어 어리둥절해지고 맙니다. 대응전은 본래 석가모니부처를 모시는 불전이라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제일 중앙에 모시는데요, 화엄사의 대응전은 이상하게도 비로자나 부처를 중앙에 모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는 역사속의 실존 인물로 불교를 창시한 부처인데 반하여, ‘광명을 두루 비추는 부처’라는 뜻의 비로자나불은 ‘진리’ 자체를 부처로 형상화한 존재입니다.

그런 비로자나불의 불전은 ‘비로전’ 또는 ‘대적광전’에 모셔야 맞는데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화엄사의 문화관광해설사의 도움을 구하도록 해볼까요?

“이 편액 역시 일주문의 현판처럼 인조의 숙부인 의창군이 쓰셨다고 해요. 불교를 억압했던 조선시대이다보니 벽암각성 스님의 공로를 높이 사서 우대를 해주긴 했지만, 화엄사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를 으뜸으로 모신다는 것을 모르셨던 모양이에요. 화엄사에서 한양으로 사람을 보내어 글을 받아 왔겠지요. 그런데 도착한 글이 맞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황송하오나 전각 명칭이 틀렸사오니, 다시 써주시옵소서,”라고 부탁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왕실 어른이 내려준 대응전이라는 편액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불교의 여러 종파 중에서 7세기 무렵 우리나라에 들어와, 훗날 통일신라의 통일 이념으로 지대한 기여를 한 화엄종에서는 비로자나부처를 제일 중심 부처로 섬긴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시대 의상이 세웠던 화엄종 계열의 사찰들은 대개 비로전이나 대적광전을 사찰 제일 중심 영역에 배치하고 비로자나 부처의 불상을 모셔두고 있습니다.

자세히 대응전 안을 들여다보세요. 화엄사의 대응전 불단에는 비로자나 삼존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맨 중앙에 진리 자체인 ‘비로자나 부처’가 자리하고, 왼편으로는 ‘석가모니 부처’, 오른편으로는 ‘노사나 부처’가 앉아 있습니다. 그 사이 사이에 작은 보살상들을 부처를 시중들도록 배치해놓았습니다. 석가모니 부처와 노사나 부처는 결국 비로자나 부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삼존불’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7.영전

영전은 모든 문이 꼭 닫혀있어 안을 들여다 볼 수가 없네요. 어떤 보물을 간직하고 있길래 이리도 꼭꼭 문을 닫아걸었을까요?

영전은 예전에는 화엄사의 역대 조사들의 영정을 모셔 두었던 곳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지금은 화엄석경의 파편 14,000여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화엄석경이라, 화엄은 화엄경을 뜻하는 것일텐데, 도대체 석경은 무엇일까요?

석경이란 돌에 불교 경전을 새긴 것을 가리킨답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후세에 영원히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루기 힘든 돌에 한자 한자 경전을 새겨 넣은 것이 석경입니다.

화엄석경은 특히 불경 중에서 ‘화엄경’을 새겨 놓은 석경인거죠. 신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경전이 ‘화엄경’이었죠. 화엄석경의 글씨는 신라의 명필 김생이 쓴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옛날 장륙전의 네 벽을 두르고 있던 석경은 임진왜란 때 장육전 건물과 함께 불에 타 무너져 내려 산산조각이 나고, 아름다운 푸른빛 도는 ‘곱돌’은 불에 그슬려 불그스름하게 변하게 됩니다.

‘화엄석경’은 초라한 돌무더기가 되어 사찰 한 모퉁이에서 오랜 세월을 견뎌왔던 거죠.

문화재는 대개 원형이 훼손되면 가치를 크게 상실하게 되지요.

그런데 화엄석경은 14,000여점 돌조각 파편으로 남아서도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화엄석경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드문 사례로 팔만대장경보다 약 400년 정도 연대가 빠르고, 나무가 아닌 돌에 새겼다는 점에서 당시 참사만 없었던들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손색이 없었을 겁니다.

팔만대장경을 새겨 몽골의 침략을 막으려고 했던 고려 무신정권의 불심을 떠올려 보자니, 산산조각 난 석경을 앞에 두고 망연자실했을 화엄사 스님들의 모습이 선하여 가슴이 아파옵니다.

8. 원통전과 나한전

원통전은 관음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관세음 보살님이 모셔진 건물입니다.

아주 익숙한 것 같다고요? 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불공을 드릴 때 부르는 바로 그 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의 현실적인 소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드리는 거죠.

화엄사의 ‘원통전’은 겉보기에 아주 소박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 대단할 것 있을까하고 들여다보면 작은 건물임에도 내부의 기둥구조가 큰 건물에서 요구하는 기둥수를 빠짐없이 갖춘데다가, 불상을 올려놓은 불단도 독립적인 구조로 기둥들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마치 궁색하게 좁은 자리에 들어앉았지만 갓출 건 다 갓춘 알짜배기 건물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이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원통전이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한 불전이 아니었나 추측하기도 한답니다.

원통전 안을 들여다보는 것도 즐겁지만, 원통전의 울퉁불퉁 고르지 못한 돌계단과 돌난간들을 감상하는 시간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자세히 바라보다 보면 깨져버린 시간의 퍼즐 조각을 집어다가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임의로 재배치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임진왜란으로 무너져 내렸을 때 여기 저기 흩어진 석재들을 되는데로 거두어 썼던 걸까요.

가만히 바라다보자니 단정히 합장을 하고 이곳을 지나쳤을 고승의 숨결까지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어떤 지점에서 떼어낸 시간이 뒤엉켜 있다는 강렬한 느낌에 자꾸만 발걸음을 멈추고 서성이게 되는 곳입니다.

그 옛날 계단 난간이었던 바닥돌을 바라보며 몇 걸음 옮기다보니 어느새 나한전 앞입니다. 참으로 아담한 건물이지요. 부처님의 열여섯 제자인 ‘16나한’을 모셨다고 해서 나한전이라고 합니다.

나한은 성자를 뜻하는 ‘아라한’의 줄임말이죠. 나한전에는 석가모니 부처가 맨 가운데 모셔져 있고, 부처님의 양대 제자였던 아난과 가섭이 부처님을 보필하여 양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한들의 표정을 바라보세요.

다른 불전에서 볼 수 있는 불상의 엄숙한 표정과는 달리 희노애락이 넘치는 나한의 표정은 참으로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 각황전

조선시대 사찰 중에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불전으로 손꼽히는 국보 각황전.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석가모니 부처를 중심으로 3불 4보살상이 모셔져 있고, 불상에 있는 후불탱화의 섬세한 선과 붉은 톤의 채색은 육중한 기둥과 어우러져 경건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지금의 '각황전' 터에는 임진왜란 이전까지 '장륙전'이라는 이름의 전각이 서 있었습니다.

장륙전은 1장 6척, 즉 480센티미터에 달하는 커다란 불상을 모신 전각으로 3층의 대단히 큰 건물이었다고 전해지지요. 장륙전은 임진왜란 때 화재로 모두 타버리는 불행을 당하고 맙니다.

화엄사를 다시 일으킨 벽암각성 스님조차 전란중이라서 장륙전의 재건을 이루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꼭 다시 지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약 100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마침내 장륙전이 재건되는데요, 벽암스님의 제자였던 계파스님은 '장륙전'재건의 큰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스님은 걱정이 태산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납니다.

노인 : 내일 아침 일어나면 집을 챙겨 길을 떠나거라. 그리고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시주를 권하거라.

꿈에서 깨어난 계파스님은 아침 일찍 절을 나섭니다. 한참 길을 가다가 산길중턱에서 한 노파를 만나게 됩니다. 간혹 절에서 밥을 얻어먹는 가난한 노파였지만 지난밤 꿈에 나온 계시대로 시주를 부탁드립니다.

계파 스님 : 부디 장륙전 창건을 위해 시주를 해주십시오.

노파 : 아니...제게 무슨 돈이 있다고...

난처하기는 노파도 마찬가지였지만 너무나도 간절하게 부탁하는 계파스님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는지 이내 결심을 하게됩니다.

노파 : 이 몸이 후에 왕궁의 자식으로 태어나 그 뜻을 이루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집니다. 너무나도 놀란 계파스님은 화엄사로 돌아가지 못한 채 정처 없이 떠돌게 됩니다.

몇 년이 흐르고 계파스님이 우연치 않게 궁궐근처를 지나다가 공주를 만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 쪽 손을 짝 쥐고 한 번도 펴지 않았던 공주는 계파스님을 보더니 너무나도 반갑게 달려가 안기면서 자신의 짝진 주먹을 열어 글씨를 보여줍니다.

계파 스님 : 장..륙..전. 아니 그럼 당신은?

계파스님을 궁궐로 불러 자초지정을 듣고 감격한 숙종은 '장륙전' 재건을 위해 막대한 돈을 시주하게 됩니다.

사실, 숙종에게는 공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냐고요? 숙종 임금과 관련된 것은 사실이랍니다. 숙종의 후궁인 숙빈 최씨와 훗날 영조임금이 된 연잉군이 장륙전 건립을 위해 시주한 기록이 남아있으니까요.

숙종은 장륙전 재건이 완공되자 이를 축하하여, '각황전'이라는 새 이름을 내립니다. 각황은 깨달음의 황제라는 뜻으로 사실 석가모니의 별호였지만, 왕실에서 시주하고 이름까지 내렸으니 '임금을 깨우친 집'이라고도 풀이할 수 있지요. 더 나아가 숙종은 선교양종대가람(禪敎兩宗大伽藍)의 지위를 화엄사에 내리니, 선종과 교종을 아우르는 대 사찰이라는 뜻으로, 당시 화엄사의 위상을 알 수 있는 이름입니다.

각황전 앞마당을 바라보니 불교의 이상의 꽃, 우담바라 모양을 본 딴 국보 제 12호로 지정된 석등이 서 있습니다. 이 석등은 높이 6.4미터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커다란 석등입니다.

부처의 광명을 뜻한다고 해서 '광명등'이라고도 불립니다. 지금이야 전기불이 들어와 이 등에 불을 밝히는 일이 없겠지만, 먼 옛날 지리산에 어둠이 내리면 이 등불은 화엄사를 밝혀서 모든 스님들을 인도하는, 그런 살아있는 지혜의 등불이었을 것입니다.

이 석등 앞에 서서 각황전을 바라보세요. 옛 주인을 밝혀주던 석등이 주인을 잃고, 이제는 새 주인을 맞아 서 있습니다. 석등 앞에 서서 보면 석등의 키가 훌쩍 각황전의 키를 넘어 섭니다. 옛 주인은 3층의 전각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만 태어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불전들도 꽃처럼 피고 지면서 생을 거듭합니다.

10. 사사자삼층석탑

각황전의 왼쪽 모퉁이를 돌아 야트막한 산자락으로 오르는 호젓한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을 '108 계단'이라고 부릅니다.

'108', 불교에 있어 자주 등장하는 숫자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번뇌'를 겪게 되는데 불교에서는 이를 108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108 번뇌'라 부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행하는 스님들의 염주알 또한 108개로 이루어져 있죠.

108가지의 번뇌를 하나 하나 곱씹으며 한 계단 한 계단 숨 가쁘게 오르다보면 어느새 부처님의 사리가 모여진 '사사자삼층석탑'에 이르게 됩니다.

'사사자삼층석탑'과 '석등'을 보니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오른 노력이 헛되지 않습니다.

네 마리의 사자가 머리에 삼층의 사자탑을 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자탑의 1층 몸돌에 새겨진 금강역사, 사천왕, 보살들은 네 방향으로 빙 둘러 부처님의 사리를 엄호하고 있습니다. 탑의 몸돌을 자세히 보세요. 양증맞은 문틀과 자물통 문고리들이 새겨져, 이곳이 신성한 곳임을 표현하고 있지요.

사람들은 이곳을 '효대'라고 합니다. 네 마리의 사자가 받치고 있는 사사자삼층석탑.

그 네 마리의 사자 기둥 가운데 연기조사의 어머니인 비구니 스님이 연꽃 봉오리를 들고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석탑 앞에는 자그마한 석등이 석탑을 마주보고 서 있는데요.

이 석등의 세 기둥 사이로 한 스님이 한쪽 무릎을 세우고 꿇어앉아 탑을 향하여 공손하게 차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스님이 바로 화엄사를 창건한 연기조사 이시지요. 이 석탑과 공양석등은 연기조사의 효심을 기리기 위하여 지어졌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 느껴보세요. 천년을 하루도 쉽 없이 바쳐 온 차향이 코끝에 은은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고려 왕자였으나 불도의 길을 걸으신 대각국사 의천은 연기조사를 지극히 존경했다고 하여 이 효대를 즐겨 찾았다고 합니다. 의천이 바로 여기 효대에서 이런 시를 읊으셨습니다.

적멸당 전경은 더없이 빼어난데

노고단 꼭대기에는 티끌 한 점 없으라

종일토록 방황하며 지난 일 생각하니

어스름 저녁 슬픈 바람 효대를 스쳐가네

연기조사에 대한 의천스님의 그리움이 한 자락 바람이 되어 효대를 스쳐 나갑니다. 네 마리의 사자들이 의천스님의 발길을 더욱 더 효대로 이끌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마다 히죽거리거나, 슬퍼하고, 찡그리고, 아니면 환하게 웃고 있는 저 사자들이 말이죠.

11. 구층암

대웅전의 오른쪽 뒤편으로 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사내에 있는 암자인 '구층암'으로 향하는 오솔길이 나온답니다.

졸졸졸 흐르는 계곡물 소리와 대숲의 사각대는 소리에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습니다. 작은 계곡의 징검다리를 건너 울퉁불퉁한 바위들로 된 계단을 골라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갑니다.

구층암에는 빼놓지 말고 봐야 할 게 세 가지 있습니다.

'모과나무기둥'과 '죽로차',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토끼와 거북이'입니다. 음, 모과나무 기둥과 죽로차는 무얼까 짐작이 가는데요, 토끼와 거북이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계단에서 올라서자 반쯤 무너져 내릴 듯 한 석탑에 잠시 눈을 맞추고, 곧 스님들이 거주하는 '승방'건물을 돌아 구층암의 중심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천불보전이 단아한 모습으로 내려다보고 있고, 그 양 옆으로 스님들이 생활하시는 아담한 승방이 눈에 들어옵니다.

천불보전을 풀면 천명의 부처님을 모신 불전입니다.

말 그대로 1,000구의 작은 불상이 모셔져 있는 '천불보전.'

고풍스런 천불보전 건물을 찬찬히 훑어봅니다.

아하, 저기 처마 밑이었군요. 약간 긴장한 표정에 동그랗게 눈을 뜬 토끼가 거북이의 등에 올라탄 모습이 해학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인 별주부전이 당장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불교에서의 토끼는 우리가 아는 피보가 아니라, 부처님의 전생으로 헌신과 희생의 상징이랍니다. 그리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의 모태가 되는 고대 인도설화에서는 토끼와 거북이 대신 원숭이와 악어가 등장한다고 하네요.

눈을 돌려 좌측에 위치한 '승방'을 보게 되는 순간 지붕을 이고 서 있는 모과나무 기둥들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순간 짧은 감탄사가 나옵니다.

'왜 구층암처럼 자연을 닮아가며 살지 못할까? 왜 우리는 반듯한 기둥만을 정답이라고 여기고 살아갈까?'

구층암의 모과기둥은 우리에게 집착하는 모든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워지라고 덕담을 건네는 노승처럼 느껴집니다.

평생을 구층암 마당을 떠나지 않고 살다, 죽어서도 기둥이 되어 승방을 지고 있는 모과나무. 그러나 거침없이 틀고, 뺏어 올라간 모과나무 기둥의 몸짓에서는 스스로를 자유로움이 느껴집니다.

모과나무가 제게 이런 얘기를 건네는군요

"누가 내 삶을 초라하다 얘기하는가? 나는 평생 이 좁은 땅에 뿌리 내렸지만 만물과 호흡했고, 바깥세상은 보지 못했지만 내 맘 가는대로 쪽쪽 뺏어 우주와 하나가 됐소."

이 멋스런 건물은 현재 다실로 쓰이고 있습니다.

구층암 뒤쪽 야산의 대숲에서 대나무 이슬을 먹고 자라는 야생차로 이 잎으로 만든 차를 '죽로차'라고 합니다.

임금님의 진상품으로 올렸을 만큼 고급스러운 차이기도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화엄사 창건 당시부터 재배되었다고 하니 죽로차를 마신다는 건 차를 마시는 동시에 세월을 마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년 봄이면 구충암 스님들이 야생차잎을 따서 수제차를 덫는 향기가 구충암을 감쌉니다.

구충암 다실에 들려 차 한 잔 하고 가시길 꼭 권합니다.

스님께서 직접 만든 황차를 마시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눠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화엄사의 차향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 떠났던 여행자’는 그동안 잃어버린 것이 아닌, 잊고 살아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여유가 생겼음을 이곳 화엄사에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